



오늘도
또한
달린다

4월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날이 많습니다.

4월 4일 종이 안 쓰는 날, 4월 5일 나무 심는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4월 29일 개구리 보호의 날.

이 날만큼은
환경을 생각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환경기념일

하지만 이 날이 아니더라도
매일을 소소한 환경기념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는 날, 물티슈 쓰지 않는 날,
텀블러 챙기는 날, 산책하며 줍깅 하는 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CONTENTS

Vol.75 2023년 4월호

발행일

2023년 4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278-1784

편집인

홍보담당관 이종섭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전영부·주무관 이유민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주)큰그림

경남교육, 미래를 만나다

04 특집 기획

이 달의 경남교육 주요 정책

천천히 가도 함께 가요!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확대)

08 요즘 아이, 별별 꿈

동계체전 최연소 4관왕

알파인스키 신혜오 선수

12 선생님이 더 배웁니다

임성화 선생님의

‘열두 달 환경교실’ 이야기

16 학교 변신은 무죄

마산신월초등학교 SI학습지원센터

20 열정을 만나는 시간

오덕관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경남교육, 재미를 만나다

24 방구석 도서관

이 달의 추천도서

26 경남교육캘린더

28 힐링필링 경남교육명소

거제수학체험센터와

숲소리 공원

32 즐겁지 아니한家

김해 환경보안단

가족봉사단

36 토박이말 나들이

38 학교폭력 예방 웹툰

경남교육, 정보를 만나다

40 진로진학 나침판

42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44 경남교육뉴스

46 의정소식

48 도정소식

50 독자기고

51 독자퀴즈





천천히 가도 함께 가요!

-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확대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실 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의 실현.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2023년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에 대해 함께 알아봅니다.

특집 기획

교실 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2023년 경남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어떻게 달라질까요?

- 1 기초학력의 (전 학생) 통합적 진단, (지원 대상) 심층 진단 지원
- 2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강화로 개별 맞춤형 지원체제 정착
- 3 읽기 곤란 및 경계선 지능 학생 등 다요인 학생 심층 지원체제 구축
- 4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과 학습 보충,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 건강 등 집중지원

기초학력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학력 진단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3월에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2단계 검사를 지원합니다.

(전 학교) 기초학력 통합진단: 학습적 측면과 비학습적 측면의 진단 및 보정 지도



(학습종합클리닉) 심층 진단

- 1단계: 기초학습기능 검사 및 정서 진단
- 2단계: 풀배터리 검사(웍슬러 지능 검사 포함 종합심리검사)

* 2022년 사례 176명의 초·중 학생이 풀배터리검사를 받고 심층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에서는 학생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에서는 진단을 통하여 학생의 부진 원인을 파악한 후 원인에 따른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개요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초학력 안전망 1단계

수업 내
책임교육

수업 내 책임교육을 통한 학습 결손을 예방합니다.

① 기초학력 전담교(강)사* 지원 : 수업 내 문해력·수리력 집중 지원

-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 25명, 기초학력 전담강사 457명(초등 321명, 중등 136명)

② 한글 및 기초수학 책임교육 : 문해력 연수 지원 및 교재 보급

*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일부 교과(국어, 수학)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을 풀아웃(pull out) 방식의 개별화 수업을 통해 초기 문해력 및 수리력을 최적의 교육방법으로 지도하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과밀학급 우선 지원)

* **기초학력 전담강사**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다른 외부강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일부 교과(국어, 수학 등)에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강사의 협력수업(co-teaching)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수업 전략을 적용하며, 특히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강사(풀아웃 방식(별도 공간에서 개별 수업) 수업 불가)

기초학력 안전망 2단계

학교 내
종합적 지원

학교 내 다중지원팀 운영을 통해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①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및 연수 운영

② 두드림학교 운영 : 다중지원팀 운영, 학부모 참여·상담 강화

- (구성원) 관리자, 담임교사, 교과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 교내 전문 인력을 통합하여 구성

- (운영) 학기 초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후 학생 원인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방안 마련, 정기 협의회를 통한 학생 이력 관리

기초학력 안전망 3단계

학교 밖
전문적 지원

학교 밖 전문가와 연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아이동행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지원 확대

✓ **아이동행 학습종합클리닉센터란** 학습지원대상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행동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다요인 또는 복합다요인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중 (3단계) 학교 밖 지원 체제로, 교수·학습, 심리·상담, 학습치료, 사회 복지 등 각 전문가로 구성된 학습코칭단을 조직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물적 지원 기관

✓ **아이 심층 진단** 학생의 부진 원인을 심층 진단하기 위한 학습코칭단 및 전문인력풀 연계 심층 진단 지원 프로그램

✓ **동행 개별 지원** 원인에 따른 학습코칭·상담지원-전문 기관 연계 집중 지원 등 개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타 부서 및 지역 전문기관 연계)

② 학습종합클리닉 프로그램 강화 및 수시 신청 학생 지원



심층 진단



찾아가는 학습코칭
프로그램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두드림학교 운영 사례

우리 함께 '쑥쑥' 자라나는 거창 가북초등학교 이야기

거창 가북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3명인 작은 학교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 부진 학생의 비율이 3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창 가북초등학교는 2022년 담임 책임지도를 기초한 개별 맞춤형 '실력쑥쑥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성장하는 뜻 깊은 1년을 보낸 거창 가북초등학교의 운영 사례를 살펴볼까요?



작은 학교 강점을 살린 개별 맞춤형 출발점 진단

- 출발점 진단주간 운영 : 3월 1주를 출발점 진단주간으로 계획하고 운영하여 담임 교사가 학생 개별 성향 및 출발점을 세밀히 점검
- 학생의 활동과 성취 수준을 세밀히 담은 중간 통지표 배부
- 경상남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생 개별 진단 향상도 검사 진행 및 관리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학생 개별화 교육 실시
- 정서 행동 검사 실시
- 읽기 유창성 향상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및 내생각 말하기 대회 운영



담임 책임지도 원칙의 개별 맞춤형 실력쑥쑥 프로그램 운영

- 국, 영, 수 학생 개별 맞춤 지도
- 부진 탈출 및 실력 향상을 위한 담임 책임 지도 기반의 방과후 실력쑥쑥교실 운영
- WEE센터와 연계한 전문가 상담 진행



다중지원팀 운영을 통한 학생 개별 맞춤형 다면 지원

- 초등 두드림 교실 정서지원 프로그램(우크렐레, 통기타, 그림 그리기, 감정 보드게임 등)
- 학생의 부진 원인이 건강 및 정서적 결여와 관련 있음을 파악하여 적극 지원



천천히 가도 함께 가는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확대

문의

055-268-1118



지난 2월 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알파인스키 종목에 참여한 열네 살 신혜오 선수가 슈퍼대회전, 대회전, 복합, 회전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하면서 최연소 4관왕에 올랐다는 소식이었다. 눈도 잘 내리지 않는 경남에서 알파인스키 꿈나무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낸 신혜오 선수. 성적의 비결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좌우명은 “오늘도 열심히 달리자”라고 말하는 신혜오 선수의 다부지고 열정적인 꿈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알파인스키** 알프스의 산악 활강에서 발전된 스키 경기 종목의 하나로 뒤꿈치가 고정된 바인딩을 장착한 스키를 타고 눈 덮인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속도를 경쟁하는 스포츠다. 회전, 대회전, 슈퍼 대회전, 활강 4개의 세부 종목으로 나뉘는데 이 중 신혜오 선수의 주력 종목은 회전이다. 회전 종목은 기문*으로 표시한 코스를 지그재그로 회전하여 최단 시간에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기이다.

✦ **기문** 스키의 회전 경기에서 코스를 설정하기 위하여 세운 깃발



01 그동안 신혜오 선수가 딴 메달들

꺾을 수 없는 알파인스키라는 꿈

올해 알파인스키 선수로 활동한 지 5년 차가 된 신혜오 선수는 7살 겨울에 처음 스키를 접했다고 한다. 아버지를 따라 처음 타본 스키에 재미를 느껴 겨울마다 즐겨 타게 된 것이 꿈의 시작이었다고.

신혜오 선수 “처음 스키를 탔을 땐 빠른 속도 때문에 무섭기도 했지만 재밌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라구요. 겨울이 오면 스키를 탈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죠. 그러다 제가 열 살 때 양산 에텐밸리 스키장에서 열린 알파인스키 경기에 참가하게 됐는데 그 대회에서 2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대회를 계기로 지금 팀에 들어가서 선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후 신혜오 선수에게 스키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닌 이루고 싶은 꿈이 되어갔다. 3학년 때 선수 활동을 시작한 신혜오 선수는 겨울에는 강원도에서 합숙훈련을, 봄·여름·가을에는 체력훈련에 집중하면서 차근차근 알파인스키 대회 경험과 실력을 쌓아갔다. 조금씩 성장세를 보여주던 신혜오 선수가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낸 것은 열세 살이 되던 해, 2022년 3월에 참가한 제37회 전국학생종별스키대회에서였다. 이 대회에서 신혜오 선수는 남·녀 선수를 통틀어서 전체 기록 1위를 달성했다.

신상훈(아버지) “사실 제 마음은 혜오가 적당히 취미 생활로만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파인스키가 비인기 종목인 데다 장비와 훈련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 집 형편으로는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데 혜오가 열세 살이 되던

겨울부터 본인이 이 꿈을 아주 간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면서. 그때부터 훈련도 더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더니 결국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어떻게 아이의 꿈을 꺾을 수가 있겠나 싶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응원해줘야겠다고 결심을 했지요.”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타고 싶어요

알파인스키는 기본적인 체력은 물론 근력과 유연함, 민첩함 등 다양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는 스포츠다. 해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신혜오 선수에게 선수로서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신혜오 선수 “제 장점은 겁이 없다는 거예요. (웃음) 좋은 기록을 내려면 가파른 경사면을 빠르게 내려가야 하는데 겁을 먹는 순간 속도를 늦추게 되거든요. 물론 저에게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스키를 타는 순간 재미있어서 다른 건 다 잊게 돼요.”

신혜오 선수의 어머니 홍태순 씨는 말한다. 스타트라인에 선 혜오를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고.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 제발 다치지만 말고 내려오기를 바라게 된다고.



홍태순(어머니)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혜오가 내려오고 나면 저도 모르게 기록에 연연하게 되더라고요. 기록이 잘 나오면 기쁘고, 안 나오면 실망도 하게 되고. 그런데 하루는 코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기 저 스타트라인에서 느끼는 간절함은 선수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다고, 스타트라인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기록에 대해 쉽게 말해선 안 된다고요.”

출발하기 전에는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기에 스타트라인에 서기까지 선수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과 싸우게 될 것이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기록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동안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므로 매번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체력뿐 아니라 멘탈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신혜오 선수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 밝은 얼굴로 말했다.

신혜오 선수 “저는 멘탈이 강해요. 훈련을 하면서 혼나는 일이 있어도 쉽게 기죽지도 않고요. 저에게 중요한 건 실패가 있더라도 끝까지 계속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즐겁게 타면 돼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또한 신혜오 선수의 장점이다. 스키를 교기로 하는 학교도 없고, 훈련 환경도 좋지 않은 경남에서 선수 활동을 하는 일이 불리하지 않나

는 질문에 신혜오 선수는 다부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가 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라고. 이러한 신혜오 선수의 좌우명은 무엇일까.

신혜오 선수 “음... 제가 가장 자주 생각하는 말은 ‘오늘도 열심히 달리자’예요. 이 생각을 하면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다음 꿈을 향해

오늘도 즐겁게 달리자

신혜오 선수가 이토록 곳곳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은 부모님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힘이라고.

홍태순(어머니) “혜오는 응원해 주는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더 혜오에게 고마워요. 매일 체력 훈련하는 것도 힘들고, 눈도 잘 내리지 않는 경남에서 스키 선수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혜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늘 곳곳하게 열심히 노력해요. 우리가 혜오를 계속 응원할 수 있는 힘은 사실 혜오가 우리에게 준 것이예요. 그 힘으로 혜오를 계속 지켜 보고 싶어요.”

02 2023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메달수여식
03 작(홍태순-어머니) 우(신상훈-아버지)



신혜오 선수가 알파인스키를 시작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역시 올해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최연소 4관왕을 한 것이다. 이 기록은 전 연령을 통틀어 알파인스키 종목의 유일한 4관왕이기도 하다.

신혜오 선수 “국내에서 열리는 제일 큰 대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다 받게 된 거라 너무 기쁘고 뿌듯했어요. 내년에는 중등부로 경기를 뛰게 되는데 그때도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신혜오 선수의 목표는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다시 한 번 4관왕에 도전하고, 2028년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는 것이다. 2028년이면 열아홉 살이 될 신혜오 선수. 그에게 올림픽에 출전한 열아홉 살 혜오를 떠올리며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번에도 신혜오 선수는 다부지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오야, 오늘도 겁먹지 말고 즐겁게 잘 달리자! 파이팅!”

앞으로 신혜오 선수가 서게 될 수많은 스타트라인을 떠올려본다. 그때마다 ‘오늘도 즐겁게 달리자’는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줄 신혜오 선수를 떠올리며 나도 함께 응원을 전하고 싶어진다. 다시 한 번 4관왕에 도전하는 열다섯 살의 혜오에게,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한 열아홉 살 혜오에게,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스타트라인에 서게 될 혜오에게, ‘오늘도 겁먹지 말고 즐겁게 잘 달리기를. 스키를 타는 동안엔 언제나 행복하기를.’

열두 달 환경교실로 초대합니다



창원 용남초등학교 임성화 선생님

다가오는 4월 22일은 지구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론자들이 제정한 ‘지구의
날’이다. 모두가 아는 공휴일도
아니고, 누구나 기다리는 기념일도
아니지만 이 교실의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지구의 날’은 4월에
꼭 기억해야 할 환경기념일이다.
4월만 그런 것이 아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함께 실천하는
환경 기념일로 가득찬 교실.
아이들 스스로 환경을 지키고
있다는 자긍심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교실. 창원시 북면
무동초등학교 아이들과
‘열두 달 환경교실’을 이끈 주인공,
임성화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선생님이 더 배웁니다

글 김달님 사진 백동민



01

<열두 달 환경교실>이 시작된 이유

창원 무동초등학교에서 <열두 달 환경교실>을 경험한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임성화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만큼 환경
도 사랑하는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애정이 듬뿍 담긴 이야기를 들
으니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보낸 지난 시간이 더욱 궁금해진다.
임성화 선생님이 처음 환경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
었을까.

“2019년에 한 여행지에서 인공 부화를 통해 태어난
새끼 거북이를 바다에 풀어주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거북이는 본래 모래사장에 알을 낳는 종인데, 지구온난화로 해
수면이 상승하면서 유실되는 알이 늘어나 멸종 위기에까지 처
했다고 해요. 그 행사를 계기로 기후 위기 심각성을 깨닫게 되
었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환경 공부를
했어요.”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자각과 함께 교사로서 책임감을 느낀 그는
2020년 반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시작했고, 2021년엔 아이들
과 함께하는 환경 동아리 ‘그린그램(초록을 1그램 더 늘리자)’을 만
들었다. ‘그린그램’에서 활동한 아이들은 2022년 기준 4·5·6학년
을 포함한 38명. 모두 임성화 선생님이 무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
는 3년 동안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이다. <열두 달 환경교실>은 ‘그
린그램’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
을지 임성화 선생님이 직접 고민하고 찾은 해답이다.

“아이들에게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환경 보호를 실천하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지구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매월 다른 환경 기
념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열두 달 환경교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1 무동초등학교 ‘그린그램’ 아이들



* 시가랩(cigarap) 사용한 담배꽂이를 써서 버릴 수 있도록 만든 특수 재질의 포스터



- 02 반려식물 심기 활동
- 03 아이들 포스터로 만든 시가랩
- 04 창원 용남초등학교 '그린그림' 아이들 활동모습
- 05 담배꽂초 버리지 않기 캠페인

환경지킴이로 성장하는 아이들

<열두 달 환경교실>은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등 끄기의 날'로 시작해 4월은 '지구의 날(22일)', 5월은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22일)', 6월은 '환경의 날(5일)', 7월은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3일)', 9월은 '자원순환의 날(6일)', 10월은 '식량의 날(16일)', 11월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26일)', 12월은 '야생동물의 날(4일)'로 마무리된다. 환경지킴이가 된 아이들은 매달 다른 주제로 환경 보호를 실천한다. 예를 들어 '지구의 날'이 있는 4월에는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550개 화분에 반려 식물을 심어 학교에서 함께 키우고, '일회용 비닐 봉투 없는 날'이 있는 7월에는 동네에 버려진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장바구니를 만들어 동네 마트에 나눠준다. 그중 임성화 선생님이 가장 손꼽는 활동은 무엇일까.

“다 기억에 남지만 9월에 했던 ‘플라스틱 구출작전’을 꼽고 싶어요. 플라스틱에는 일곱 가지가 있는데 분리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려워 심각한 온실 가스를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인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세제 통을 비롯해 플라스틱 용기를 구출하듯이 수거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돕는 <테라사이클 코리아>라는 회사에 보냈더니 화분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지난해 7월,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꽂이를 주워 담배 제조회사로 보내는 ‘꽂초터택(attack-공격)’과 아이들이 직접 그린 포스터가 시가랩(cigarap)*디자인에 반영된 일도 있었다.

“담배꽂초가 하수구로 흘러가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결국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동네에 버려진 담배꽂이를 줍고, 담배꽂이를 버리지 말자는 포스터를 만들어 동네 곳곳에 부착했어요. 그 포스터를 보고 <시가랩 19>라는 회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시가랩 디자인에 반영을 해주셨죠. 정말 신기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환경의 날’이 있는 6월, 학교 근처 음식점 15곳과 협약을 맺어 다회용기를 가져가면 할인해주는 ‘용기내 챌린지’를 진행한 일도 빼놓을 수 없다.

“15개 가게 중 한 커피 전문점은 사장님이 자비로 텀블러를 챙겨온 아이들에게 100원을 돌려주셨고, 떡볶이를 사면

300원을 할인해주는 분식점도 있었어요. 덕분에 아이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었죠.”

이렇듯 <열두 달 환경교실>의 범위는 학교 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집과 동네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천을 통해 경험한다. 때로는 어른들의 행동과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선생님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길 바란다. 환경 보호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면 사회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초록 초록 자라나는 교실

지난 1년, 아이들만큼이나 임성화 선생님의 열두 달도 쉴 틈 없이 흘러갔다. 퇴근 이후는 물론 주말에도 쉬는 일 없이 수업과 환경동아리 활동을 준비하느라 1년이 금방 지나가버렸다고. 그가 이토록 열정을 다하는 이유는 역시 아이들이다.

“사실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는데요. (웃음) 아이들이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환경 공부를 해요?’라고 묻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돼요.”

하루하루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임성화 선생님. 그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을까.

“얹이 실천이 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종이컵을 절대 사용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한 내용은 꼭 실천하는 교사로 꾸준히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임성화 선생님은 올해 창원 무동초등학교를 떠나 2023년 탄소중립 시범학교로 선정된 창원 용남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용남초등학교에서도 ‘그린그림’이 결성되었고 임성화 선생님과 아이들은 조금씩 일상 속 환경실천을 늘려가며 새로운 <열두 달 환경교실>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1년을 보내게 될까. 어디를 가도, 어디를 봐도 초록 초록한 4월. 임성화 선생님 교실에서도 더없이 귀한 초록빛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을 것이다.



MINI INTERVIEW

창원 무동초등학교 환경동아리 ‘그린그림’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Q1 <열두 달 환경교실>을 경험하고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나요?

가림 처음 ‘용기내 챌린지’를 할 때는 부끄러웠는데요. 하다 보니 자신감이 붙어서 지금은 가족들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로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승빈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쓰고, 양치할 때도 꼭 양치 컵을 써요.

다원 선생님 덕분에 비건(Vegan)을 알게 되었고, 음식도 최대한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요.

Q2 임성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요?

윤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지 재미있게 알려주세요.

라희 저희를 너무 사랑해주시고 그만큼 환경도 사랑하는 선생님이에요.

소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구를 지키는 선생님이에요!

채연 임성화 선생님이 최고예요. 선생님, 우리 또 만나요!

학교가 아닌 줄 알았어요!

또한 학생들은 스마트교실에서 AI 로봇을 활용한 수업이나 블록 코딩(엔트리)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수업, 가상 공간에서 체험하고 배우는 수업을 경험하게 된다.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날은 인공지능 센서가 장착된 로봇 ‘알파미니’를 활용한 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모듈별로 ‘알파미니’에게 물을 질문을 정한 다음 아이들이 생각하는 예상 답안과 ‘알파미니’의 대답이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비교해보는 수업이다.

☞ **5학년 조유찬**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지 물어봤는데 클로버는 독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대답을 해줘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 **이재현 교사**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인공지능이 더 많은 일상생활에 스며들 것이고, 그에 따라 직업은 물론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 또한 변화하게 될 것이고요. 계속 발전하는 인공지

능 기술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일들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AI학습지원센터는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자라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스마트교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인공지능 체험이 가능한 문화복합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축구, 미로 탈출 등 코딩 게임을 체험할 수 있고 VR과 메타버스, 가상스포츠 체험도 가능하다. 스마트교실에서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활용을 익힌다면 이곳에서는 다양한 놀이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기를 수 있다. 그 외 신월스튜디오 공간에서는 책담터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거나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볼 수 있다. AI학습지원센터는 관련 교육에 대비하는 교사들의 연수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5학년 정범서** “개학하고 처음 여기에 왔을 때 학교가 아닌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더 자주 와서 친구들과 이랑 게임도 하고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AI학습지원센터



미래교육의 중요한 출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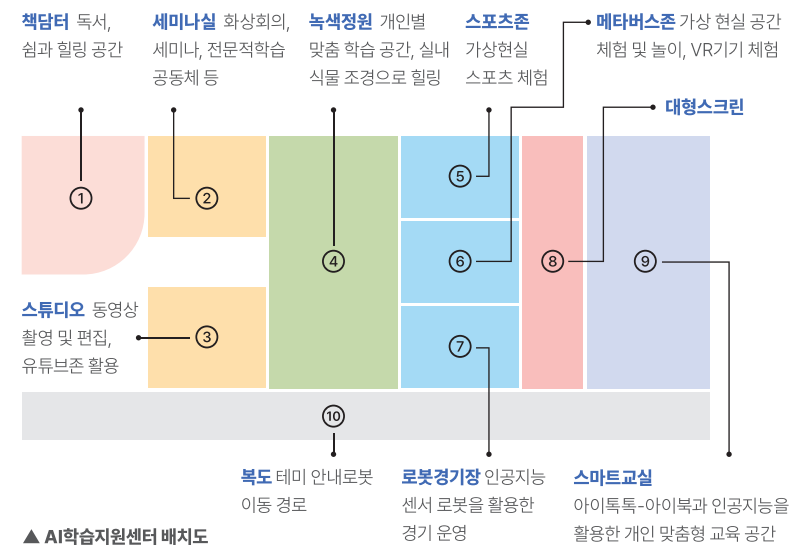
마산신월초등학교 AI학습지원센터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사례로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 **이재현 교사** “처음 시도하는 사례여서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AI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수업 사례가 긍정적으로 공유되고, 앞으로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지역의 미래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AI학습지원센터는 어떻게 발전해나갈까. 이곳에서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말은 희망적이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현재다. 바로 지금, AI학습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

- 01 개인 학습 공간에서 스마트 기기로 공부하는 아이들
- 02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수업
- 03 신월 스튜디오
- 04 이재현 정보부장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어른

오덕관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즐거운 학교 생활은 등하굣길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다. “가방덮개를 형광색으로 만들면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위험하니까 안 돼.”, “아이들은 보폭이 좁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은 초록불 켜진 시간을 늘려야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어른 한 분을 만났다. 오덕관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이다.

Oh Deok Kwan

경상남도교육청과 손잡고 통학 안전 수호

오전 8시 20분쯤 되면 통학로에 아이들이 점차 많아진다. 이날도 어김없다. 학원차며 보호자들의 개인 차량이며 학교 정문이 제법 소란하다. 교통안전 도우미 어른들과 하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일사불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돕는다.

부아아앙-. 독특한 엔진 소리가 나더니 선글라스를 낀 경찰 한 분이 순찰용 이륜차(싸이카)를 타고 지나간다. 경남경찰청 내 10명으로 구성된 교통 싸이카 순찰팀 중 한 분이다. 오덕관 계장이 H사 이륜차라고 알려주며 말을 덧붙인다.

“경남도 내 싸이카 35대 중 우리 청에서 10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은 지역에 출동해서 몇 바퀴 돌면 사고 발생 건수가 확연히 감소합니다. 신기하죠?”

경남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각별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학교에 싸이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인사기동·경호를 할 때 싸이카를 출동시키니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란 말일까.

싸이카뿐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과 손을 맞잡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강사로 나가기도 한다. 매

년 도교육청, 녹색어머니회(1만 6981명), 모범운전자연합회 등과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일선 학교에 나와 교통안전 지도하는 것을 비롯해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안전한 경남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물론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화물적재조치 위반 등 중 심과제를 선정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히 지도·단속한다. 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과 사고 다발구간에 무인단속 장비를 운용해 법규 준수를 유도하며 전파교통정보센터를 운용해 강설 기상특보에 따른 도로 통제사항 등을

66

바깥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는
 현장 지도·단속에
 나가거나 할 수 있죠.
 심리 쪽에 관심이 있으면
 거짓말 탐지기도
 써볼 수 있고요.
 싸이카도 있습니다.
 우리 경찰관이 최고라니까.

99

도민들에게 알린다. 각종 행사나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관리와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계획도 수립한다.

학생, 학부모, 도민이 통학 안전 함께 지킴시다

등교하며 그에게 머리를 꾸벅 숙이고 인사하는 친구가 제법 있다. 본청에 근무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현장에 나와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의 얼굴을 익힌 아이들이 인사를 한다고. 교통과에 몸담은 지 13년 됐으니 얼굴을 모를 수가 없겠다. 통학 지도 현장을 가만 보니 차가 많아도 너무 많다. 어린이보

호구역은 학교 주 출입문 반경 300m. 그 안에 주민들의 주차 차량과 통학 차량이 뒤엉켜 혼잡하다.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불법 주차한 거죠. 이론차도 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튀는 럭비공처럼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통학 차량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들이 아이를 횡단보도나 그늘 길에 내려주고 무작정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보도 위, 안전한 곳에서 내려주셔야 합니다. 골목길하고 교차로에서도 무조건 멈추시고요. 학생들은 ‘서다, 보다, 걷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운전자들도 똑같이, 서고 보고 서행하세요.”

등교하는 학생 가운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도 더러 있다.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기 전에 헬멧,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나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맨몸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요즘 청소년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 문제도 심각하다.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보호자 등의 면허증을 도용해 사고 발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개인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업체가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법으로 미성년의 가입을 제한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에요.”



- 01 통학차량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내리는지 지켜보고 있다.
 02 가방 안전덮개를 착용한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교통사고 예방은 안전교육이 중요!

1989년, 그는 순경으로 입직해 33년을 경찰로 살고 있다. 그간 다뤄온 여러 사건·사고 중에서도 교통사고는 목숨과 직결되니 당연히 이 문제에 진지할 수밖에 없다. 그는 ‘민식이법’ 제정에 대해서 “잘 나왔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민식이가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다. 어린이뿐이라, 도로 위의 생명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

“교통안전공단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의사항 등에 관해서 약 20회 강의를 했었어요. 이후에 관리자한테서 사망사고가 많이 줄었다며 전화가 와서 교통경찰관으로서 보람 있었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이들은 진주 대아고등학교 학생들이다. 2016년 경찰청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개선활동을 위해 청소년교통안전나눔미를 조직했다. 당시 진주에서 근무하던 오 경찰관이 학생동아리 ‘철경철경’ 팀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들이 전국에서 1등을 한 것이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학생들한테 교육을 잘 해야 해요. 서다 보다 걷다.”

그는 학생들에게 경찰이란 직업을 강력히 추천한다.

“자기가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은행 업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과태료 정수를 할 수도 있고 바깥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는 현장 지도·단속 나가거나 할 수 있죠. 심리 쪽에 관

심이 있으면 거짓말 탐지기도 써볼 수 있고요. 싸이카도 있습니다. 우리 경찰관이 최고라니까.”

경찰관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물었다.

“체력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판단력과 책임감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한테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요. 이러한 권한을 공평하고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판단력과 책임감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오 덕관 계장은 오늘도 출동이다.



한 그루 나무에서

우거진 숲이 되기까지

봄은 파종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마침 4월 5일이 식목일이기도 하죠.
방 안의 여러분도 함께 나무를 심어 봅시다.
책을 꺼내 펼치세요. 씨앗 하나가
여러분 속에 품 떨어질 거예요.
두 장, 세 장 읽을수록 이 나무는
점점 자랍니다. 한 권, 두 권 읽다 보면
지혜의 숲이 되겠죠.

올봄에 심기 좋은 다양한 씨앗 책을 골라
경남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잘 가꿔 주세요.

교육 리더가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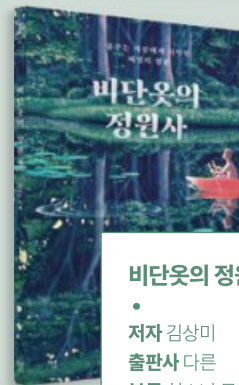


인생의 역사
• 저자 신형철
출판사 난다
분류 한국에세이

시, 인생을 향해 던지는 치열한 질문

신형철이 ‘인생’과 ‘역사’라는 키워드로 통찰한 시 이야기(詩話)다. 글자들이 옆으로 걸어가면서(行) 아래로 쌓여가는(聯) 대단하지 않은 예술이지만 인생의 육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곧 시라고 말한다. 단 네 줄로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고통을 오롯이 담아낸 오래된 노래 ‘공무도하가’부터 박준의 시, 그리스의 서정시에서 밥 딜런의 가사까지, 시대와 국경을 넘나들며 동서고금에서 산발적으로 쓰인 인생 여정이 담긴 시를 고르고 골라냈다.

고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비단옷의 정원사
• 저자 김상미
출판사 다른
분류 청소년 문학

비밀의 생각 정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글, 그림, 음악 등 분야를 막론하고 창작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작가는 드물다. 글이 팔리지 않아 연재할 곳을 잃을 위기에 놓인 청년, 더 이상 차기 작품을 쓰지 못하던 노인, 불의의 사고로 눈으로만 소통하는 아이. 세 사람은 꿈꾸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비밀의 정원에 우연히 닿는다. 그곳은 이야기와 책, 문장과 작가의 이상향이다. 비단 옷의 정원사는 의욕이 꺾여있던 그들에게 정원을 안내하며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현실로 돌아온 주인공들은 어떤 작품을 써냈을까?

중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열다섯에 곰이라니
• 저자 추정경
출판사 다산책방
분류 청소년 문학

동물이 된 사춘기 아이들의 우여곡절 성장기

정체불명의 현상으로 동물이 된 사춘기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담았다. 곰으로 변한 태웅, 비둘기가 된 세희와 지훈, 들개가 된 국영 등 주인공들은 자신의 성격을 닮은 동물로 변한다. 이들은 동물화라는 혼란의 시기를 겪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찾고 한 뼘 더 자라난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춘기라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재미와 위로를 건네고 주위 가족들에게는 이해와 기다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초등 저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자음의 탄생
• 글 전정숙 그림 김지영
출판사 올리
분류 어린이교양

자음이 만들어진 원리를 쉽게 풀어 쓴 그림책

자음이 만들어진 원리를 재미있는 캐릭터들의 흥미진진한 모험에 빗대어 그려내고 있다. 공기 덩어리들은 동굴(입안) 천장에 굽히고 부딪치고, 붉은 덩어리(혀)에 밀려 나오고, 닫히는 문(입술) 사이를 비집고 나오기도 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밖으로 나와 자음이 된다. 입안을 동굴로 비유한 작가의 상상력이 재미나고,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된 그림들이 눈을 즐겁게 해준다. 직접 말소리를 내어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자음의 탄생 원리를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초등 고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왜 유명한 거야, 이 그림?
• 글 이유리 그림 허현경
출판사 우리학교
분류 어린이 교양

유명한 화가들의 더 유명한 작품들

교과서에 나오고 광고에서도 패러디 되는 명화들은 어떻게 유명해졌을까? 이 책은 <모나리자>, <별이 빛나는 밤>, <절규> 등 작품 12점에 얹힌 특별한 이야기를 엄마와 아이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 그려진 방법이 독창적이거나, 당시의 시대를 잘 담고 있거나, 도난당했다 돌아온 이야기까지. 읽다 보면 어느새 그림 속 숨겨진 의미를 깨닫고 예술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것이다.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작가들이 살았던 그때로 그림 여행을 떠나 보자!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4
월
새달
2023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김해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마산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창원도서관

SUN	MON	TUE
창원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안내 샌드 크래프트 4월 한 달간 매주 주말 책담 1층 누리홀 10:00, 16:00 VR 프로그램 4월 한 달간 해당 날짜 행사 (1-5-6-12-13-15-19-20-26-27) 책담 2층 책고리 / 10:00(평일), 14:00(주말)		
2	3	4
10:00~11:00 / 책오름자료실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악어가 온다>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피아노 음악동화 <동물의 사육제>		10:00~11:50 / 3층 더배움5 / 라탄공예 (~4.25.까지, 매주 화)
9	10	11
10:00~11:00 / 책오름자료실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길아저씨 손 아저씨> 14:00 / 책담 2층 책넷 / 체험 <책담 하루 수업>		친구랑 지구 한 바퀴
16	17	18
10:00~11:00 / 책오름자료실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무지개 띄 과일>	10:00~17:00 / 진주체험분원 /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축제 사진신청 (~4.19.(수)까지)	
23	24	25
10:00~11:00 / 책오름자료실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14:00 / 1층 어린이자료실 / 유설화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유설화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30	샌드 크래프트 4월 한 달간 매주 주말 책담 1층 누리홀 10:00, 16:00	
10:00~11:00 / 책오름자료실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떡시루 잡기>		

WED	THU	FRI	SAT
			1 16:00~17:00 / 북카페 / 김풍선의 매직버블 10:00~11:00 / 1층 유아실 / 나비 썸캐쳐 만들기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 15:00 / 3층 무학전당 / 풍선 매직쇼 14:00 / 구암홀 / 명사의 SEA闊 <어떤 호소의 말들> 10:00~15:00 / 김해체험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생태체험 (~4.30.까지, 매주 월~금) 10:00~12:00(1회), 14:00~16:00(2회) / 진주체험분원 / 토요 가족체험 10:00 / 꿈담 4층 꿈1 / 원데이 클래스 <시나모롤 메모꽂이 만들기> 13:30 / 꿈담 4층 꿈1 / 원데이 클래스 <아니셀 키텀 만들기> 14: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책동산> 14:00 / 해담 3층 해담홀 / 체험 <다문화 프로그램 '친구랑 지구 한 바퀴' 3차시(타키)>
5 10:00~11:50 / 3층 더배움5 / 전통매듭 공예(~4.26.까지, 매주 수)	6		8 15:00~16:30 / 북카페 / 정글in 그림책작가 '난주' 1인극 14:00 / 3층 시청각실 / 아이랑 동화극장 <마리오네트 퍼포먼스 쇼> 14:00 / 지혜마루 / 토토로 어서옵SHOW 퓨전국악콘서트 : 비원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 16:00~18:00 / 3층 더배움1 / 민주(民主)야 놀자! (~4.29.까지, 매주 토) 14:00 / 3층 무학전당 / 월하 김달진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 15:00 / 1층 놀이꽃밭 / 사자대왕과 첫술맨 14:00 / 구암홀 / 인문학 콘서트 <Jazz in Cinema> 16:00 / 지혜마루 / 재능기부공연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봄, 바람의 소리> 09:30~12:00, 14:00~16:30 / 김해체험분원 / 4월 가족 나들이 토요체험
학생 체험프로그램 <정글북> 초등 4.5.~4.21.까지 (매주 수, 목, 금)			
12	13 14:00 / 1층 만장대실 / 가족 카드지갑&책갈피 만들기 - 종일 / 도서관 곳곳 / 개관 기념축제 <책봄 문화 축제> (~4.15.(토)까지) 17:00 / 지혜마루 / 힐링 공연 책 읽어주는 음악회 <어린이왕자>	14 14:00 / 인문학방 생의 한가운데 / 자이언트만 가방 만들기 17:00 / 지혜마루 / 샌드아트 공연 <누구 때문이지?> - 진주체험분원 / 소규모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과학체험	15 16:00~17:00 / 북카페 / 뮤지카 펠리체 14:00 / 1층 미디어스튜디오 / 크로마키존에서 배경 합성 사진 찍기 11:00 / 별빛마루 / 별빛인형극 : 파이드독을 막아라 14:00 / 지혜마루 / 인문학콘서트 박완의 <유지컬 읽어주는 남자> 15:00 / 1층 세상을 볼 / 가야금 연주 10:00 / 동화방 / 체험 <책 읽어주세요> 14:00 / 구암홀 / 인문학 콘서트 <Music in Cinema> 16:00 / 지혜마루 / 마술쇼 <코믹매직 벌룬쇼> 10:00 / 꿈담 4층 꿈1 / 원데이 클래스 <넵킨아트 연필꽃이 만들기> 13:30 / 꿈담 4층 꿈1 / 원데이 클래스 <클레이 토끼캐릭터와 온들이 토끼만들기> 14:00 / 해담 3층 해담홀 / 체험 <다문화 프로그램 '친구랑 지구 한 바퀴' 4차시(일본)> 15: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FOR FOUR (김기경의 프레데릭 앤 프란츠)>
19	20	21 15:00 / 지혜마루 / 재능 기부공연 <경남피아노 듀오협회의 봄의 찬미>	22 14:00 / 3층 시청각실 / 저자 강연 릴레이 <이희영 작가> 14:00 / 지혜마루 / 오픈마이크 : 앙상블 이불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 09:00~18:00 / 도움 1, 2 / 지구에게 희망을 #화분나눔 14:00 / 3층 무학전당 / 토요 인문 특강 : 정지아 작가 강연 14:00 / 구암홀 / 인문학 콘서트 <봄에 떠나는 오페라 여행> 15:00 / 지혜마루 / 힐링공연 - 기후위기 주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하니까> 10:00 / 꿈담 1층 꿈담홀 / 공연 <샌드아트> 15:00 / 책담 해오름 / 공연 <무대 위의 인문학(앙상블 공연)>
			
26 11:00 / 지혜마루 / 수요음악회 <클래식 클리어>	27	28	29 15:00~16:30 / 북카페 / 인형극 <생쥐 한시루시루>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 11:00 / 지혜마루 / 어린이 인형극 공연 <숨바꼭질 도깨비> 14:00 / 구암홀 / 인문학 콘서트 <봄, 사랑, 그리고 뮤지컬> 10:00 / 꿈담 4층 꿈1 / 원데이 클래스 <가방고리 만들기> 13:30 / 꿈담 4층 꿈1 / 원데이 클래스 <동물 손거울 만들기>
학생 체험프로그램 <정글북> 유치원 4.26.~4.28.까지 (수, 목, 금)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봄바람 부는 거제에서 수학과 휴식을 함께 즐기는 방법!

거제수학체험센터·숲소리공원

살랑살랑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어디로 봄나들이를 떠나보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다가오는 주말엔 거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푸른 봄 바다를 따라 거제로 향하면 수학이 즐거워지는
‘거제수학체험센터’와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숲소리공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즐거울 것이다.

거제수학체험센터

- 📍 주소 거제시 중곡로2길 45(거제중앙초등학교 별관)
- 🕒 운영일 매주 월~토(매주 일 휴무)
- 🕒 자유관람 체험 월~금 13:30~16:30, 토 09:30~12:00
- 📍 누리집 <https://gnmc.gne.go.kr/gjfm>
- ☎ 문의 055-635-9225

※ 프로그램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사전 연락 바랍니다.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다고요? 거제수학체험센터

평소 수학을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까운 수학체험센터로 떠나보자! 경
남수학문화관은 수학기초 대중화를 위한 국내 최초의
체험탐구 중심 수학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경남도 내 총
6개 지역에 수학체험센터 분원(거제, 양산, 진주, 밀양,
김해, 거창)을 갖추고 있다. 그중 거제중앙초등학교 별관
에 위치한 <거제수학체험센터>는 ‘행복한 수학 체험’을
목표로 놀이와 체험을 통해 다양한 수학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곳이다. 운영 일정에 따라 자유 관람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체험을 원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자. 그럼 <거제수학체험센터> 안으로 들어가 볼까. 먼
저 1층 입구에 위치한 가족마당은 로봇 오디션, 전자 테
셀레이션, 기후변화 예측 등 미래교육 관련 콘텐츠 체험
이 가능하며 오른편에 위치한 가온마당은 바리케이드,

구슬퍼즐, 마스터 로직 솔리테어 등 여러 수학게임과 수학도서가 준비되어 있어 놀이를 통해 즐겁게 수학을 익힐 수 있다. 3층으로 이동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호응이 높은 수학체험탐구관 채움 마당이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수학적 원리가 포함된 60여 종의 교구 및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4층에는 SW교육체험실도 마련되어 있다.

자유 관람도 좋지만 <거제수학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체험 수학 프로그램 외에도 토요일에는 주말 가족 체험 프로그램인 ‘함께하는 주말수학데이’를 운영한다. 4월과 5월에는 ‘다면체로 만나는 숲 한 조각’, ‘코스페이스스와 함께하는 증강현실교육’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4월 프로그램은 현재 거의 예약이 마감되었고 5월 프로그램은 4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참여해보자! 월별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 및 예약은 <거제수학체험센터>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자연과 함께 마음껏 뛰놀다

숲소리공원

이번에는 머리도 식힐 겸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숲소리공원으로 떠나보자.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에 위치한 약 17ha 규모의 숲소리공원은 거제수학체험센터에서 자동차로 20분만 이동하면 된다.



01

경남수학문화관 수학체험센터 분원 안내

양산수학체험센터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28 ☎ 055-381-1203

진주수학체험센터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588번길 18 ☎ 055-757-0628

김해수학체험센터

김해시 우암로 165 ☎ 055-311-0314

밀양수학체험센터

밀양시 가곡13길 24 ☎ 055-356-3014

거창수학체험센터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48 ☎ 055-944-3996



02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 하나. 숲소리공원은 왜 ‘숲소리공원’일까? 이 궁금증은 숲소리공원에 입장해 조금만 걷다보면 알 수 있다. 도심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자연의 소리가 우리를 반겨준다.

잘 가꾸어진 편백 숲에 난 산책로를 따라 걸기만 해도 충분히 좋지만, 이곳을 아이들과 함께 가면 더 좋은 이유는 다양한 체험과 놀이 공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숲소리공원에는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커다란 <도토리놀이터>가 있다. 도토리놀이터라는 이름답게 도토리 모형을 활용한 대형 미끄럼틀을 비롯해 여러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바닥은 완충재로 되어 있어 안전함까지 갖추었으니 도토리놀이터에 방문한 아이들은 그저 신나게 놀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는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양떼목장>이다. 널따란 푸른 초지를 한가롭게 거니는 양떼를 보고 싶다면 <양떼목장>을 찾아가면 된다. 울타리 너머에서 안전하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가능하니 꼭 경험해보길 추천한다. 단, 먹이 주기 체험은 티켓(2000원)을 별도로 구입해야 가능하니 관리사무소 2층 카페 내에서 미리 발권하거나 <양떼목장>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된다. 평일에는 초지에 양을 방목하지 않으므로 주말에 나들이 겸 방문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대신 평일에도 <동물쉼터>에서 쉬고 있는 양과 토끼를 만나볼 수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말기를!

이 외에도 곤충과 표고버섯을 관찰할 수 있는 체험장과 6월에 가장 아름다운 수국공원도 마련되어 있다. 머지않아 1km가량의 숲속 모노레일도 설치된다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겠다.

거제숲소리공원

- 주소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산13
- 운영시간 매일 10:00~18:00(매주 월, 설, 추석 휴무)
- 입장료 무료(예약 없이 별도 이용 가능)
- 문의 055-634-3733



- 01 경남수학문화관 채움마당
- 02 거제숲소리공원 산책로
- 03 거제숲소리공원 도토리 놀이터



03

우리 가족은 지구를 지키는 환경보안관!

김해 수남초

심현웅 학생 가족



아빠 심재홍 엄마 장인희 첫째 심진웅(공군항공과학고 1학년) 둘째 심선웅(김해수남중 2학년) 셋째 심현웅(김해수남초 1학년)

‘봉사’하면 어렵고 뻘한 일로 생각하기 쉽다. 심현웅 학생 가족은 고민 끝에 쓰레기 줍기를 택했다. 언제 어디서나 쓰레기는 지천이니까. 쉽게 접할 수 있어 쉽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기후위기나 생명존중과 같은 어려운 개념을 같이 줍게 됐다. 하천에서, 산에서, 강과 들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이리저리 갈고 닦으니 반짝반짝 빛이 난다. 아니다. 이제 보니 아이들 눈이 빛난다. 이 가족이 빛난다.

봉사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

즐거운 가족

어느 화창한 봄날, 첫째 형의 고등학교 입학식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아빠 심재홍 씨는 멀리서 일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다. 큰아들 진웅이는 머리카락이 짧아졌고 작은아들 선웅이는 코밀이 제법 새카맣다. 막내아들 현웅이 애교는 여전하다.

심재홍(아빠) “봉사활동을 같이 하기 전에는 한집에 있어도 그냥 각자 할 일을 했었는데요.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족이 함께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심현웅(셋째) “봉사활동하면서 아빠랑 형들이랑 같이 놀아서 좋아요. 같이 봉사활동하자고 했을 때 기대했어요.”

처음부터 가족 봉사를 하려던 건 아니었다. 2020년 첫째 심진웅 학생과 둘째 심선웅 학생이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의 자기도전포상제 활동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아이들은 봉사활동을 선택했고 좋은 일은 함께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된다는 말처럼 봉사활동은 좋은 일이니 온 가족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자연스럽게 가족 봉사로 이어졌다. 무슨 봉사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 율하천 쓰레기 줍기를 떠올렸다.



심재홍(아빠)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때라 봉사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기후위기 이슈와 환경 훼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때마침 줄깅(우리말 ‘줍다’와 영어 ‘jogging’의 합성어.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 유행이었죠. 우리도 한번 해 볼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4년째 매주

환경보안관 활동에 열심

심현웅 학생 가족은 벌써 4년째 매주 토요일 쓰레기를 줍는다. 집 근처 율하천이나 반룡산, 조만강 등 김해 구석구석, 파란 조끼를 입고 쓰레기봉투를 달랑 달랑 들고 다니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는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 동안 바지런히 줍고 담으면 20L 쓰레기봉투 2~3개 양이 나온다. 주말마다 나오는데도 하천 주변 쓰레기는 줄지 않는다.

심재홍(아빠) “아이들이 일상에서 쓰레기를 안 버리게 되더라고요. 쓰레기 주운 데 다시 가니까 또 쓰레기가 있고. 그러면서 쓰레기 버리는 걸 싫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담배꽂이를 정말 싫어해요. 담배꽂이는 사이사이에 다 끼어 있어서 애들이 담배를 싫어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자기는 담배 안 피우고 싶다고.(웃음)”

아이들의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직접 쓰레기를 주우며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지구가 다시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다. 엄마는 봉사를 통해 아이들이 세상 보는 눈이 넓어졌다고 말한다. 한 가지 예로 삼 형제는 옷을 잘 사지 않는다.

심진웅(첫째) “옷을 잘 안 사게 됐어요. 지구를 지키는 데에 패션 산업을 잘 봐야 해요. 만드는 데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만 버릴 때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요.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플라스틱을 분해하면서 토양과 수질 오염이 생깁니다.”

심선웅(둘째) “형이 입던 옷을 그냥 물려 입어요. 형 옷은 다 괜찮아서 아무렇지 않아요.”

막내 현웅 학생은 부모님과 형들의 모습을 보고 환경 보호활동에 더 열심이다. 김해시자원봉사센터가 모집한 ‘지구를 구해줘! 우리는 환경보안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V-Korea 경남대회(경남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기억은 현웅 학생에게 활동을 지속하는 큰 응원이 되어주었다.

심현웅(셋째) “친구들도 쓰레기 같이 주웠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아프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어른들은)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요즘 이 가족은 지구를 지키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고 있다. 업사이클링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기본이다. 지난해에는 주말텃밭을 가꿨다. 두 이랑 되는 작은 텃밭에서 고추며 피망, 토마토, 가지 등을 직접 수확해 먹었다. 마트의 상품이 아니라 우리와 땅을 공유하는 생명으로 마주하니 비로소 ‘지구’가 후세대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장인희(엄마) “땅을 일구는 데도 그 안에서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공터가 아니라 산이었는데도 쓰레기가 있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게 된 엄마는 ‘나 하나쯤이야’에서 ‘나 하나라도’로 태도가 바뀌었다. 환경 관련 서적을 읽고 강의도 듣고, 직접 행동하

기로 마음먹었다.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던 재능을 살려 환경교육 강사가 돼 보면 어떨까 싶다. 제로 웨이스트 등 환경에 관심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민단체를 꾸렸다. 아이나 어르신, 학생이나 직장인 등 대상에 관계없이 환경교육 강의를 나가며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엄마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인 아빠는 경남교육가족에게도 쓰레기 줍기 가족 봉사를 추천한다.

심재홍(아빠) “다른 가족에게도 쓰레기 줍기를 꼭 권하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 교육도 되고 또 가족이 같이 하니 즐거운 추억도 생기고요. 지구도 지키고 칭찬도 많이 받아서 아이들 동기부여도 되고요. 누군가 한 명만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하면 가족과 분리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쓰레기 줍는 일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으로 여겨집니다.”



봉사는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

가족은 말한다. 봉사란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일이라고. 아이들은 어른과 함께한 봉사, 체험, 여행의 기억을 갖고 어른으로 자란다. 이 기억은 삶의 힘이 되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장인희(엄마) “보호자들이 먼저 환경보안관이 되어서 환경을 지켜주세요. 어른이 바뀌면 깨끗한 환경은 아이들이 지구보안관으로서 지켜낼 거예요. 지금 지구는 어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이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되돌려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웃으며 살 수 있도록 깨끗한 지구를 돌려줍시다.”

토박이말바라기와 함께하는 토박이말 나들이

배움책(교과서)에서 캐낸 토박이말
서른여덟 번째

글점 월점

1학년 국어 배움책(교과서) 서른여덟 번째 배움 마당은 ‘소리
내어 또박또박 읽어요’입니다. ‘문장 부호를 생각하며 글을 띄
어 읽기’가 버름소(주제)이고 ‘문장 부호 알기’라는 알맹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문장 부호’라는 말과 아랑곳
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

!

먼저 ‘문장’은 한자말로 ‘글월 문(文)’과 ‘글 장(章)’을
쓰는데 한자 풀이를 하자면 ‘글월 글’이 되어 그 뜻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서 ‘문장’을 찾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문장(文章)

- 글을 뛰어나게 잘 짓는 사람
- 한 나라의 문명을 이룬 예악(禮樂)과 제도. 또는
그것을 적어 놓은 글
-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뒤엿것은 줄임)

이것을 보면 배움책에서 쓴 ‘문장’의 뜻은 셋째 것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 ‘월’이
있다는 풀이도 있습니다. 이 ‘월’을 표준국어대사전에
서 찾으면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
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라고 앞서 본 ‘문장’의
셋째 풀이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옆에는
한자 또는 다른 나라 글이 나란히 적혀 있지 않은 것으
로 볼 때 토박이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호’도 한자말로 ‘부호/부신 부(符)’와 ‘이름/부르짖
을 호(號)’를 쓰고 있으며 한자 뜻풀이만으로는 그 뜻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호’를 찾
으면 세 가지 풀이가 나옵니다. 먼저 ‘일정한 뜻을 나타
내기 위하여 따로 정하여 쓰는 기호’라는 풀이가 나오
고 나머지 두 가지는 ‘수학’에서 쓰는 뜻을 풀이하고 있
어서 배움책에서 쓴 ‘부호’의 뜻은 첫째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뜻풀이에 나오는 ‘기호’와 ‘부호’를 가리기

쉽지 않지만 ‘기호’가 ‘부호’보다는 뜻이 넓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장’의 뜻도 알른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부
호’의 뜻도 알기 어려운데 ‘문장 부호’를 1학년 아이들
한테 어떻게 풀이를 해 주어야 할까요? 저는 이런 걱정
이 앞서는데 “문장은 말이나 글로 생각을 나타내는 가
장 작은 단위를 말해요.”라는 풀이만 있을 뿐 배움책 어
디에서도 ‘문장 부호’의 뜻을 풀이해 주지 않아서 안타
까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문장 부호(文章 符號)’를 찾으면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잘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 부호’라고 풀이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비슷한말로 ‘글점’과
‘월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장 부호’라는 말보다는 ‘글점’
또는 ‘월점’이라는 말이 1학년 아이들한테는 알아차리
기 쉬운 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아
이들도 입으로 소리를 내어 하는 것은 ‘말’이고 종이에
쓰거나 적은 것은 ‘글’이라 한다는 풀이를 해 준 다음에
는 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이라는 말의 뜻 가운데 ‘문장 부호로 쓰는 표’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문장’을 갈음해 쓸
수 있는 토박이말이 ‘월’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월점’이
라고 하면 더 딱딱해질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배움책에서는 ‘문장
부호’라는 말보다 ‘글점’ 또는 ‘월점’이라는 말을 먼저
알려 주어서 배우고 익히는 데 힘을 덜 쓰게 도와주었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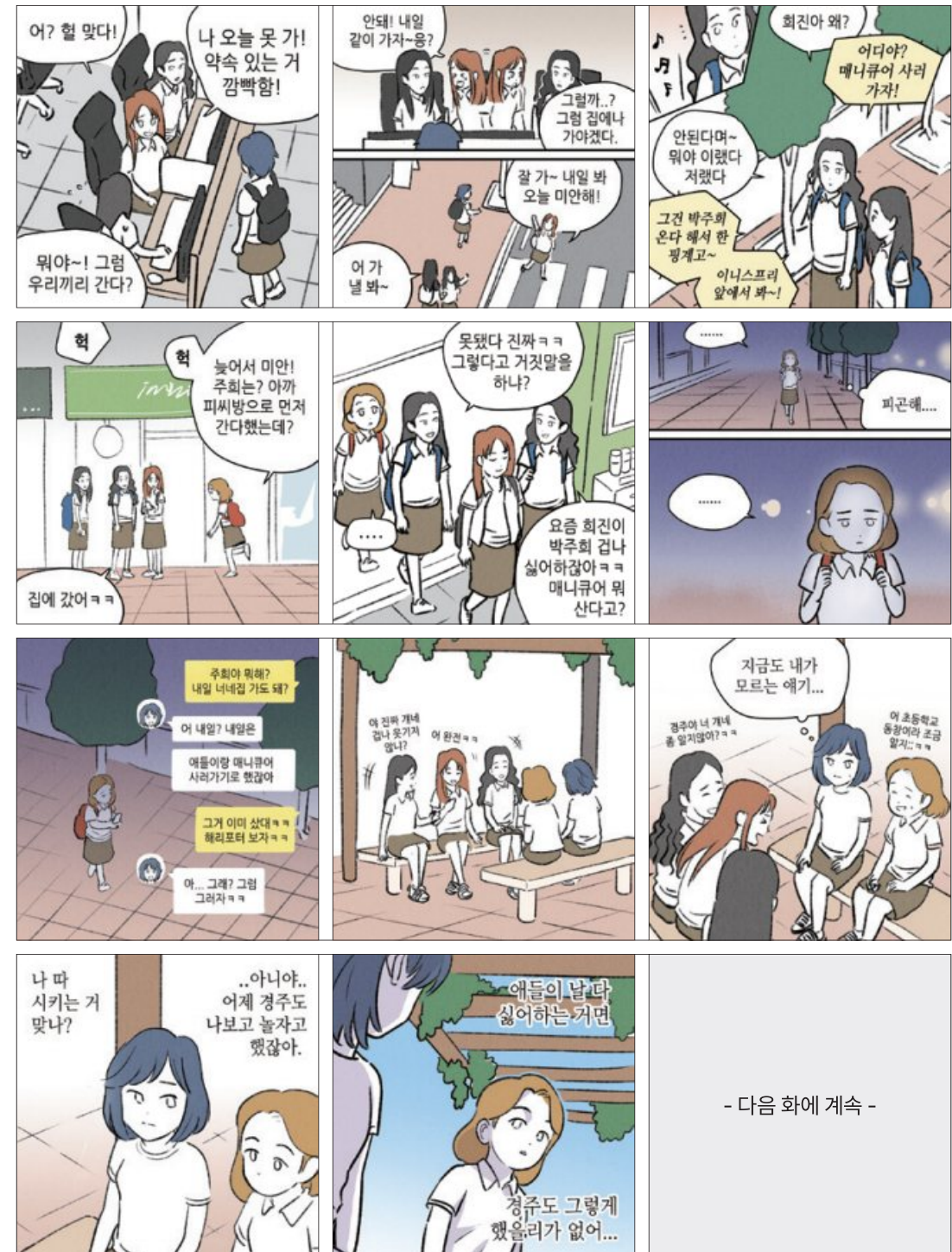
당
신
도

모
르
는

사
이
에

3화

웹툰작가 **앵무**



- 다음 화에 계속 -

2024학년도 대입전형 그것이 알고 싶다

고등학생 학년별 1차 고사 준비 방법



2024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

지난 3월호에서는 학생부위주전형의 특징과 지원전략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4월호에서는 고등학생 학년별 1차 고사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학기마다 1차 고사와 2차 고사를 합산한 점수로 학기별 성적이 결정되는 만큼 학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1차 고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고등학교 시험 성적은 대입에서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준비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교과 성적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

2024학년도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학생부위주전형은 68%를 차지합니다.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나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성적을 평가합니다. 이는 대입에서 교과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려줍니다.

전형별 성적 평가 방법

교과별 원점수·평균·표준편차·수강자수·등급으로 성적을 평가하는데 학생부교과전형은 등급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성적을 산출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원점수·평균·표준편차·수강자수·학기별 성적추이와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에 유의하여 성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1~3학년별 1차 고사 준비

1학년 국어·수학·영어·공통사회·공통과학의 성적은 상대평가이고 과학탐구실험은 절대

평가입니다. 중학교와는 시험 문제 유형이 달라 준비가 미흡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 선생들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해야합니다. 학교 시험은 교과 선생님의 수업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니 필기와 수업 중 강조한 내용 중심으로 학습해야합니다.

2학년은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의 경쟁을 통한 상대평가로 대부분의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수의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교과 성적을 학생부 반영 방법에 활용합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교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 교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이 이수한 모든 교과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별 학생부 반영방법을 살펴보면 진로선택과목 중심의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인 일반선택과목에서 성적의 변별력을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2학년 때까지의 교과 성적은 매우 중요하므로 성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3학년때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상대평가인 일반선택과목은 물론이고 A, B, C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진로선택과목의 비중이 큰데요. 학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진로선택과목을 정량적 점수로 변환하여 성적에 반영하고 있음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 학과 관련 과목 이수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학업 역량 성장 과정을 중점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수업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합니다. 최우선으로 수업시간에 충실히 임하고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강조하였는지 상기하면서 노트 필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친구들과 중요한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논의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과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II, 프랑스어II, 스페인어II, 중국어II, 일본어II, 러시아어II, 아랍어II, 베트남어II
	한문		한문I	한문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 2015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보통 교과 교과목 구성

※ 수능 출제 과목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안전한 통학로는 즐거운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첫 관문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가방안전덮개와 안심우산 도입을 비롯해 2021년엔 통학로 전지도시스템 ‘안전아이로’를 자체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교육청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1

‘실시간 어린이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 맞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길 바라는 경남교육 가족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안전아이로 누적 접속자는 2022년 한해 월평균 2만 7293명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접속자는 총 32만 752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에 정확하고 신속한 통학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상남도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올해부터 최신 교통안전 서비스를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진 측량과 위성항법 최신 장비로 구축한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안전아이로와 연계한 것인데요. 안전아이로는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 시설물 개선을 위한 분석 도구를 제공하며, 학교는 안전한 통학로 이용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와 교육 자료로, 도민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 창구로 안전아이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아이로’ 현장실사 후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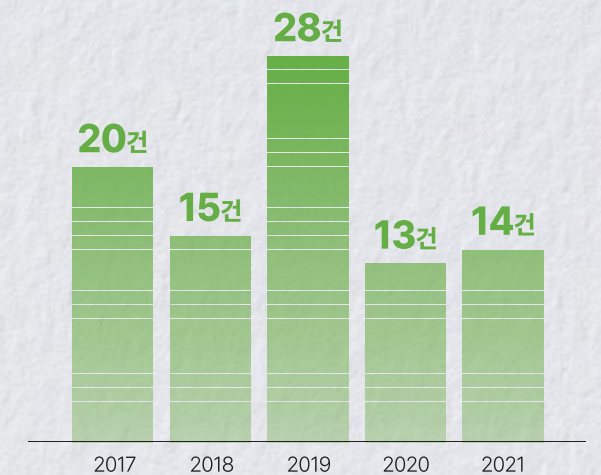
경남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내 모든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 조사 했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총 3단계로 1단계에서는 안전아이로를 활용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11곳을 분석하여 현장 점검이 필요한 학교를 발굴했고, 2단계는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3월 한달간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3단계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범위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종합분석은 부족했습니다. △학교 주(主)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가 아닌 곳 △주요 도로라 하더라도 학생의 주 통학로가 아닌 곳 △속도 제한이 어려운 곳 등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 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정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가 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의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합니다.

3

“아이가 보이면 일단 멈춤!” 통학로 교통안전 지키기 캠페인

최근 5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



경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통학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지난 3월 창원시 성산구 유목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경남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 창원중부경찰서, 성산구청,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 경남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공공기관과 지역이 함께 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속도 30km/h 준수와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걸을 때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등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하는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는 총 90건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0건, 2018년 15건, 2019년 28건, 2020년 13건, 2021년 1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우리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교육 NEWS



취약계층 학생 교육적 성장 돕는다



올해 교육복지사 추가 배치 등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강화

경상남도교육청이 올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강화한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찾아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강화하고자 올해 법정 저소득층 학생 1000명 이상인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사를 추가 배치했다. 이로써 지난해 18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사를 각 1명씩 배치(창원은 2명)한 데 이어 올해 창원과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지역에 1명씩 더 늘렸다.

물품 지원의 개별사업 중심에서 학생의 교육적 성장 지원을 위한 △학습 △일상생활 △의료 △관계 증진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교육복지 방향에 맞게 학생 중심 통합적 성장 지원에 힘쓴다. 지난해 지역별로 시범 운영한 △또래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사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전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전면 운영한다.



경남교육청, 도민 평생교육 기회 넓힌다



‘2023 평생교육기본계획’ 수립...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기반 구축

경상남도교육청은 평생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를 넓히고자 ‘2023년 평생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023년 평생교육기본계획은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기반 구축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건강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정착을 담고 있다.

경남교육청 소속 27개 공공도서관은 △상·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어린이와 가족 대상 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찾아가는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문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술교육원 ‘해봄’은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공연·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행복마을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경남교육청은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 누리집(정보공개→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시설 모아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교육 NEWS



함안도서관, 새 터전에서 힘찬 도약



아라가야와 미래를 잇는 함안도서관 신축 개관

경상남도교육청은 2월 28일 오후 2시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16, 새로운 터에서 함안도서관을 신축 개관했다. 개관식은 ‘독서문화의 새 별을 쏘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박종훈 교육감, 조근제 함안군수, 경남도의원, 함안군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함안도서관 개관은 경남교육청과 함안군의 적극적인 협치로 이뤄졌다. 함안군은 터 무상 사용 허가, 사업비 10억 원 지원, 주변 주차장 조성 공사 시행 등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탰다.

함안도서관은 지난 2021년 8월에 착공해 개관까지 약 16개월이 소요됐다. 총사업비 93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4300㎡, 건축면적 2464㎡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단장했다. △1층 아라누리(어린이자료실), 무진(공방), 흥련(휴게실) △2층 가야누리(종합자료실), 말이(휴게실), 디지털존, 공존(예코존), 코믹스(웹툰·만화책 보는 곳), 함초롬(동아리방) △3층 셋별(자유학습실), 함주홀(시청각실), 통합방(강의실), 다함방(강의실) 등으로 구성됐다.



경남교육청, 학교급식 납품업체 관계 기관 합동 점검



경남도·지자체·aT·학부모 등... 미등록지서 납품행위 등 단속

경상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해 3~4월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달 학교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납품업체와 관련해 다수의 업체가 있는 창원, 김해, 양산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다. 해당 업체는 해당 지역 학교의 급식 납품 현황 전수조사를 토대로 선정해 3~4월에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별 점검은 경남교육청,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시청 위생담당, 영양(교)사, 학부모 등 5개 팀, 20명으로 관계 기관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업체 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작업해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기 식재료 및 부패·변질한 식품(원료) 사용 여부 △사용기한 임박 식재료 납품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계약 차량이 아닌 차량 운행 납품 여부 △중증자 건강진단·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도의원에게 듣는다

이용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산 1, 국민의 힘

Q.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지만, 아이들은 22세기를 살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교육의 경쟁력이 이를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남도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Q. 의원님께서 최근 경남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셨죠. 어떤 기준과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 심사에 참여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은 시대 상황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의 학습과 삶의 질 향상,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과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계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과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경청하고,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제출될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며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 없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지역구인 양산시의 신규 특화산업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제안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남의 일자리는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제조업 일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종사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양산시에 부산대 의과대학이 있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바이오산업 입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바이오산업을 경남의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지역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재편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2023년 경남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23년 경남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어느 누구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척이나 소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가정환경을 비롯한 외적 요인도 있지만 기존 학교 시스템에서 배우는 것보다 자기의 꿈을 미리 찾아 컴퓨터, 요리, 미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특정 분야를 미리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경남도와 함께 정책적으로 협력하여 이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소식

경상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개최

도정질문 실시, 조례안 심사 등



경상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가 3.9.(목)~3.16.(목)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청과 관련하여 정쌍학 의원 등 2명 의원의 도정질문과 박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있었고, 전체 안건은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경상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1차~2차 교육위원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02회 임시회 기간 중 제1~2차 교육위원회(2023.3.14.~15.)를 개최하였다. 14일(화)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3개의 의안을 심의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 심사 후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 단속 강화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경상남도교육청 16개 직속기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 사안에 대해, 15일(수)에는 1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차(茶)에 담긴 천년의 고귀함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로 초대합니다

2023하동세계차엑스포가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 동안
하동군 하동야생차박물관, 하동스포츠파크 등 하동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주최하고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 3년(서기 828년) 당나라에서 돌아온 사신 김대립이 차 종자를 가지고 오자,
왕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 📍 위치** 하동군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박물관 일원
- ☎ 문의**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055-880-7070
- 🎫 입장권** 일반 1만 원, 청소년 6천 원, 어린이 4천 원
- 예매·단체할인 시 일반 6천 원, 청소년 4천 원, 어린이 3천 원
- 예매 할인은 5월 3일까지(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왕의 녹차로 불리는 하동의 야생 녹차

하동군 화개면 벚꽃 길 사이로 보이는 형형한 푸른빛의 야생차밭. 나지막한 언덕배기 화강암 바위틈을 비집고 자라한 차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야생차 군락지다. 해안이 있는 조상들은 예부터 하동을 최적의 차 생산지로 점차왔다. 섬진강과 그 지류인 화개천·악양천에 연접해 안개가 잦고, 차 생산 때 밤낮의 기온 차가 커 재배에 뛰어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개면에서 생산된 차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에게 진상됐고, 재래종 차 재배 위기였던 일제 강점기에도 하동 차의 품종과 다례 문화를 지켜내 현재까지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하동세계차엑스포 핵심 프로그램, ‘천년다향 힐링길’

화개면에는 섬진강 줄기를 따라 차 생산 농가와 다원이 줄지어 서 있다. 오늘날 하동 차 명성은 이들이 가가호호대를 이어 지켜온 뒤는 기술(제다법) 덕분이다. 차밭 조성에서부터 생산,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온 그들의 수고에는 하동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 있다.

엑스포에서는 화개면의 여러 다원과 야생차밭을 걸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야생차밭을 걸으며 차 생산 농가와 다원의 연계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천년다향 힐링길’은 이번 엑스포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흥 대표는 “직접 오셔서 찾았도만 저보고 차를 마셔보세요. 하동 야생차가 커피보다 더 세계적인 음료가 될,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를 100배 즐기려면?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제1행사장 하동스포츠파크와 제2행사장 하동야생차박물관을 중심으로 열린다. 5개 전시관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1행사장에는 한반도 차(茶)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주제관인 ‘차 천년관’, 오감을 활용한 차(茶)의 효능을 소개하고 생활 속 다양한 차(茶) 제품을 소개하는 ‘웰니스관’이



들어선다. 또 나라별·시대별 차(茶)와 문화, 한반도 차(茶)의 역사와 문화와 차(茶) 생활·예술을 느껴보는 ‘월드티아트관’, 세계의 차(茶)와 국내의 차(茶)를 알려주고 의류·화장품·뷰티관련 산업을 소개하는 차(茶) 복합존, 공예 존, 티푸드 존 등 차(茶) 산업과 기업을 소개하는 ‘산업 융·복합관’이 마련된다.

제2행사장에는 뿌리 깊은 차나무와 지리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주제 영상관’이 생생하게 연출된다. 특히 하동야생차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전시효과는 그동안 야생차 문화축제의 수준을 넘어 최대의 연출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엑스포 기간 중 입장권만 소지하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경남 도내 12개 시·군, 27개 유료 관광시설과 연계 혜택도 마련했다. 제1·2행사장 인근에 5700대 주차면 수를 확보하고, 평일 20분 간격, 주말 및 공휴일 12분 간격으로 행사장 간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대표 프로그램

구분	행사명	일자	장소
특별행사	대한민국 차의 날, 차인 큰잔치	5.25(목)	제1행사장
경연행사	세계 티푸드 경연대회	5.28(일)	
	월드 티자이더 챔피언십	5.17(수) ~ 20(토)	
체험행사	와글와글 차회	5.6(토), 5.21(일)	제2행사장
	찾잔 들고 세계여행	상시	제12행사장
	다함께 차차차		
	차 한잔 체험 (맛있茶, 예쁘茶, 재밌茶)		

“투발루 사람들 전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섭지요.”

임윤정 실천교사단 | 기후천사단 운영

평소와 같이 뉴스를 보던 중 이미 몇 몇 섬들은 바다로 사라졌다는 투발루 주민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다. 또 다른 날에는 빨라진 지구온난화로 인해 30년 뒤에는 북극 얼음이 다 녹을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한 원인을 찾으며 주변을 돌아보니 불편한 점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 더 일찍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교육을 받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며, 나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나비가 되어 작은 날갯짓을 일으켜보자는 다짐을 하였다.

새 학기 첫 만남, 학급 환경동아리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걸 왜 해요?’라는 표정으로 앉아있던 아이들. 매달 있는 환경 날을 알려주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어느새 아이들의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다.

‘함께하자 기후 환경 지킴이!(합기지)’라는 동아리 이름을 가지고 환경을 위한 학급 규칙부터 만들었다. 물티슈 대신 걸레 사용하기, 이면지 사용하기, 정확한 분리 배출하기, 환경 도서 읽기 등 사소하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보자는 다짐과 함께 우리의 환경동아리 활동은 시작되었다.

‘세계 불끄기의 날’에 홍보포스터를 만들어 가정으로 보냈다. 포스터를 아파트 문 앞에 붙이고 주민들에게 홍보했다는 기특한 아이들. ‘지구의 날’에는 페트병 화분에 초록식물을 심어 교실을 녹색커튼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초록빛으로 물든 교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던 아이들. 그밖에,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하기, 재활용품을 활용한 운동회 응원도구 만들기, 온책읽기 활동도 환경과 연계한 활동으로!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환경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쏟아내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앞으로 도 아이들의 작은 날갯짓이 시작될 수 있게 환경동아리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23년 4월호

독자퀴즈

아이좋아 경남교육 4월호를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 2023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신혜오 선수가 최연소 다관왕을 수상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① 알파고스키 ② 알파인스키 ③ 알바왕스키 ④ 알로하스키

2. 다음 중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론자들이 제정한 <지구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객관식)

① 4월 5일 ② 4월 15일 ③ 4월 22일 ④ 4월 30일

3. 창원 무동초등학교 환경동아리 ‘그린그램’ 학생들과 임성화 선생님이 일 년 동안 함께한 환경 교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4.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과 아이북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공간이자 다양한 인공지능 체험이 가능한 ‘이 공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3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 정답
● 당첨자

1. ③ 피겨스케이팅 / 2. ② 꿈자람터 / 3. 3.15마산의거 / 4. 고교학점제
양산 가양초 최예빈, 창원 상남중 전효비, 거제 중앙중 이채운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매월 제시되는 독자퀴즈의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3년 4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전자우편(gne8@hanmail.net)
● 문의 055-278-1784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읽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또는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자유 형식)를 아래로 보내주세요.

● 제출 기한 2023년 4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전자우편 gne8@hanmail.net
● 전화번호 055-278-1784

경남교육 SNS

경남교육 정책과
주요행사를 실시간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